데스크 시각

견제 대신 자폭 택한 국민의힘의 셈법

채희종
디지털 본부장

언론 매체는 늘어나지만 한쪽 편만을 드는 보도의 편향성은 되레 강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비중을 두고, 보수 언론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방점을 찍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든 진보든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는 기사 영역이 있는데 '여당과 야당'을 주제로 삼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국민의힘은 야당을 가리킴이 분명함에도 논조가 형평성을 유지한다. 언론이 두 거대 정당을 정당명 대신 여·야로 표기할 때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닌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반대세력 축출로 확장은커녕 분열

신문만을 놓고 보자. 최근 한 달여 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여·야에 대한 기사나 사설, 칼럼 등을 보면 논조가 대동소이하다. 성향이 정반대인 신문들이지만 여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회 및 국정운영을 지적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야당과 관련해서는 외연 확장은 커녕 자멸의 길을 택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언론은 여당보다는 야당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에 따른 야당내 분열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근본적으로 여당보다 야당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세기 민주주의의 최고 이론가 로버트 달은 "집권세력에 맞서 합법적으로 반대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면, 그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나 권위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했다. 칼 포퍼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은 항상 오류를 가질 수 있다. 야당의 견제는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실천이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회적 폭발을 방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의 역할과 기능이 그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본 것이다. 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결국 견제이고 그것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개념이다.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언론 입장에서는 현재 여당의 거듭된 실정에도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하는 야당이 좋은 먹잇감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믿고 챙겼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그들을 둘러싼 갖은 의혹 속에 쫓겨나다시피 당을 떠났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승승장구했던 김병기, 한때 새 정부의 장관이 될 뻔했던 강선우, 거기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후보자. 이들의 갑질과 비리 의혹은 하나같이 덮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당연히 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입고 대혼란에 빠져야 맞다. 예상과 달리 여당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고 당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억지를 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통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지지율은 40% 초반으로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한 여론조사도 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급기야 야당 지도부는 외연 확장은커녕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 분열의 길을 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 청산을 원하는 대다수 보수세력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뜬금 없는 단식에 돌입해 출구를 찾지못하다가, 단식을 만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동훈을 잘라냈다. 탄핵을 받았던 대통령이 탄핵된 또 다른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치인의 손을 잡는 장면은 보수 지지자들로서도 좀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 장면이었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주길 바라던 중도층이나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자폭행위나 다름없었다.

야당 부재…여당에는 '복'아닌 '독'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계파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야당의 정체성이 모호한 만큼 미래는 더 암담해질 것이다. 지도부는 정적 제거와 함께 더욱 살기등등하고,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들은 난장판 속에서도 2년 남은 총선만을 생각하며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힘을 지지하던 보수나 중도를 버리고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만을 바라보는 폭주의 결말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혹자들은 자폭을 택한 야당의 행태가 여당에게 행운이라고 하지만 야당 복은 반드시 독으로 변하는 게 정치 원리이다. 여당 입장에서 보수 야당의 추락은 당장에는 유리해보이지만 종국에는 폭주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 역대 정권에서 보듯 비리나 실정이 계속되고 결국엔 의회와 정권을 내주게 된다. 야당이 강하지 못하면 여당은 부패하고 국민과 나라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형 선고로 보수 야당은 막다른 길에 섰다. 야당은 자신들의 퇴행이 여당의 폭주와 악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을 향한 야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지라도' 옳다. 그것이 여당·정부를 긴장시켜 정책의 오류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견제하지 못하고 반대하지 않는 야당은 짖지 않는 개만 못하다. 그 자체로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손해일 뿐이다. 여당을 지지하는 마음 이상으로 야당을 응원하는 이유이다.

社說

행정통합 대비 부실한 산하기관 정비해야

행정통합으로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게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간 행정 통합으로 인해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실 운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산하 기관만 하더라도 현재 22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하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공시를 누락해 전남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신흥시장 개척에 동시에 참여해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업무가 같아 행정 통합 이후 중복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관이다. 통합돌봄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 통합 이전인 현재도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법인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처럼 2년마다 치르는 국제박람회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기관은 지난해 행사때 고질적인 교통과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전남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사람들의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진행되선 안된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행정통합 이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 건강' 고위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광주시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광주시가 취약지구 열린마음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마련한 올해 계획안을 보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3명 가운데 1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 받고 알코올 중독 비율은 전국 평균을 11배 이상 웃돌았다. '열린마음 상담센터'는 광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4.6%를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30.2%는 알코올 중독자로 분류했다. 일선 현장에서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마련한 통계인데 예상보다 충격적인 수치라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10개 단지 1만 4500세대다. 1·2인 가구가 많다 하더라도 3만명에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이 정신장애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주민의 대다수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 특성상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중독 및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광주시는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이들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취약지구 열린마음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아파트 단지에 상주하거나 순회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선별 검사와 심층 상담, 사례 관리를 제공하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통합돌봄' 등 복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나선 것도 이런 차원인데 예산을 더 늘려 촘촘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관리는 공공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은펜칼럼

회식의 종말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그 많던 호프집은 어디로 갔을까. 한때 밤마다 북적이던 대학가와 오피스 밀집 지역의 술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는 약 4400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51%가 호프집과 간이주점이다. 물론 술집만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전체 점포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호프집의 감소 폭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주류 소비 역시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5년 대비 2021년 약 18% 줄었다.

이 현상에는 불경기의 영향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음주 소비 패턴의 변화에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 이들은 술을 덜 마실 뿐 아니라 마시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음주 문화를 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인식 전환을 가속화했다. 이미 회식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이들에게 팬데믹은 '회식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 이제 과거와 같은 형태의 회식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회식의 종말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밤 경제'의 붕괴와 유통 지도의 재편으로 읽힌다. 술 중심의 회식은 식사 중심으로, 저녁은 점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1차 식당, 2차 호프,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소비 사슬은 무너졌고 그 여파로 노래방 수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반면 비알코올 음료 시장, 편의점 소비, 배달 음식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술잔을 섞으며 서열을 확인하는 '회식 자본주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된 개인들이 각자의 취향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결되는 '파티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강압적인 위계의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는 '취함' 대신 '취향'을 선택하는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술병 대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이 SNS를 채우고 전시 관람이나 공연, 취미 활동 같은 문화적 경험이 저녁 술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혼술과 혼밥의 확산으로도 이어졌다. 과거에는 고립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벗어난 선택이자 해방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회식의 종말이 남긴 아쉬움도 있다. 과거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던 인간적인 위로와 상담은 점차 효율적인 기술적 조언, 나아가 AI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있다. 인간적 유대감을 위해 감정을 소모하는 행위 자체가 '비효율'로 인식되는 경향도 짙어졌다. 여전히 소속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은 일부 구성원들은 이러한 관계의 파편화 속에서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집단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고립을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술 소비 감소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평균 주류 소비량은 2011년 9리터에서 2016년 8.6리터로 감소했다. 영국의 상징과도 같던 펍은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도 맥주 판매량이 줄고 있다. 미국 주류 시장 역시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에는 미국 수제 맥주 산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생산량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주류 기업 50곳의 시가총액은 최근 4년 사이 약 8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이 증발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그 독특함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자주 조명돼 왔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24년 한국 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음주 혁명'을 소개했고, 2013년 미국 CNN은 "한국인이 잘하는 것 10가지" 가운데 하나로 회식(Hoesik)을 꼽았다. 당시 CNN은 상사가 주도하고 폭탄주를 마시며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는 술자리 문화를 설명하며 '회식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7가지 팁'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조언이 '위계질서 파악하기'였다는 점은 한국 회식 문화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식의 종말이 술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적인 술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술을 즐긴다. 다만 달라진 것은 회식 문화다. 그 변화가 음주 문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無等鼓

외로움 퇴치

외로움(loneliness)은 열등감과 함께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꼽힌다. 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우울증과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며 여러 가지 일탈 행위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내몰리기도 한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멀스멀 전파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 디지털 소통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농어촌으로 갈수록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이 두드러지고 경제적 불안정성까지 동반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 지역 사회가 협력해 개인이 더욱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외로움을 개인감정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주요 정책대상으로 다루는 나라들이 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다. 외로움이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면역력 저하, 치매, 심지어 사망률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며 정서적 문제를 넘어서 생물·의학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공공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같이 어울리게 함으로써 사회적 처방을 내린다. 일본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와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회의를 개최하고 외로움·고립 대상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통합돌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자체들 역시 준비가 한창인데, 이참에 초고령 사회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를 구할 강력한 외로움 퇴치 대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로움은 매우 강력한 감정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기 고

걷기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조귀임
전 광주 백운초 교사

걷기가 일상이 돼버린 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북풍한설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않고, 걷기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운다.

요즘은 모자, 목도리, 마스크, 장갑은 필수이고 두꺼운 외투와 털신으로 무장한다. 걷다 보면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추위도 싹 가신다. 걷기는 내 삶의 활력소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에 좋고 무릎 부담적어 보약보다 낫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외활동이 자연스레 줄어들고 특히 겨울철에는 운동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꾸준한 걷기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한다.

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 가장 접근성 높은 유산소 운동이다. 단순한 일상활동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자세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걷다보면 전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운동으로 바뀐다. 걷기운동은 면역력 향상으로 몸의 대사 활동을 촉진해 면역세포의 활동을 강화시켜 준다. 규칙적인 걷기운동을 하다보니 혈관기능이 향상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걷기운동은 뇌의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정신건강 개선에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체중 관리 및 체형 개선으로 칼로리 소모뿐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여 걷는것만으로도 허리와 하체 라인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지속적인 걷기는 복부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걷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팁은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되, 속보 수준의 빠르기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다.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는 바른자세를 유지하고 걷기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예방한다. 걷기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운동이므로 하루 30분 걷기는 보약보다 낫다.

100세 시대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할까. 단연 자연속에서의 걷기이다. 그럼, 어떻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것인가가 문제다. 이 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까지 확산된 상태다. 노인이 되면 신체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관절상의 문제, 평형감각의 저하, 체력 저하, 심혈관 질환, 심폐 기능 하락, 근력 감소 등 신체의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실제 체력은 옛날 같지 않다. 이같은 사실을 절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60세가 되면 20, 30세에 비해 평형감각은 약 30%밖에 안된다.

산책중 잠깐 쉬어가는 광주향교는 조선시대 광주지역의 관학 중심 중등교육과 지역민 교육을 담당하고 공자와 여러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는 등 성리학과 유학 관련 일을 하였던 곳이다.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향교의 노송 10여 그루는 오가는 행인들의 마음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잘 다듬어진 잔디는 평온하고 아늑하게 감싼다. 높이 뻗어 위상을 자랑하는 홍살문은 자연과 어우러진 운치 있는 조형·휴게시설이다. 살고 있는 곳 주변을 걷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간을 만나는 것도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